

의미 영역에 근거한 새로운 성서 히브리어 사전의 편찬

라이니어 드 블로이스

1. 서론

근간에 성서 히브리어 사전이 여러 권 출판되었다. 새로이 편찬되고 있는 사전들도 있다. 그런데, 사전 편찬에 관한 지식은 과거와는 무척 많이 변한 것을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대적인 사전 편찬에 관한 지식이 (성서) 히브리어 사전 편찬에 어느 정도까지 사용될 수 있는가를 다룰 것이다.

1.1. 전통적 방법론

의미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어떤 특정한 단어의 의미를 어떻게 알아낼 수 있는가?”이다. 이 질문은, 성서 히브리어 사전의 창조라는 거대하고 지겨운 작업에 착수하기 전에도 반드시 대답되어야 할 문제이다. 보다 전통적인 히브리어 사전을 연구해 보면 표제어의 의미를 결정할 때에 사용하는 몇 가지 기준을 발견하게 된다. 이 기준에 대해 간단히 조사해 보고 그것들을 평가해 보자.

1.1.1. 어원

어원이란 단어를 내부적으로 재구성할 때 얻어지는 정보이다. 이것은 동족어 자료의 도움을 받아 얻어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어떤 단어의 의미를 그 단어가 파생되어 나온 어근의 의미와 비교할 때에, 그 단어가 가질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의미를 추론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단어 연구가 정보 제공에 있어서 유용하기는 하지만, 흔히 이 방법론이 너무 지나치게 강조된다. 이후에 언급하겠지만, 단어의 진짜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그 단어의 가장 폭넓은 의미 영역을 가능성으로 두고 그 단어가 쓰인 문맥 안에서 단어를 연구해야 하기

때문이다. 성서 본문의 주석에 있어서 단어의 어원에 너무 지나치게 의존하는 나머지 잘못된 주석을 하는 예는 쉽게 볼 수 있다.

1.1.2. 비교 언어학

지난 몇 백년간 성서 히브리어에 대한 지식은 비약적인 발전을 하였는데, 이는 동족어의 수사본과 비문들을 발견한 데에 힘입은 것이다. 그런 자료 중 일부는 당시에는 존재하는지조차 모르던 것들이었다. 위 본문들을 해독함으로써 고대 중동 언어의 모자이크에 보배 같은 새 식견을 얻게 되었고, 또한 그 때까지 잘 해석이 되지 않던 히브리어 단어들의 또 다른 의미를 알아낼 수 있게 되었다. 이런 방법론 역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 이로써 사전의 저자가 어떤 단어가 의미 B가 아닌 의미 A를 갖고 있다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보를 다룰 때에는 매우 유의하여야 한다. 이것은 다른 세계관, 다른 문화라는 상황을 지닌 다른 언어로부터 기원한 것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많은 경우에 그 자료도 매우 한정되어 있다. 또한, “단어는 자기 언어 내에서 그것이 사용된 시대에만 의미를 지니는 것이다.”(Barr 1992: 141) 단어의 의미를 규정하는 가장 일차적인 방법은 그 단어가 발견되는 모든 문맥 속에서 단어를 연구하는 것이다.

1.1.3. 의미론적 분석

위에 열거된 사전들은 대개 어느 정도의 의미론적 분석을 행하고 있다. 표제어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를 나타낸다고 간주되는 대응어휘가 대개 앞에 나오고 그 다음에 파생적인 의미를 지시하는 어휘들이 뒤따른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구조적인 의미론적 분석은 쉽게 볼 수 없다. 언어 이면의 세계 속에 존재하는 서로 다른 개념들이 그 언어 사용자에게 인지되는 어떠한 방식이 있을 것이다. 또한 이 개념들이 의미론적 형태로 전이되는 어떠한 방식이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바로 그러한 것들을 상세하게 연구하려고 한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서 단어들의 의미에 대한 통찰을 얻을 수 있고, 또 서로 다른 의미들이 상호 관계 맺는 방식에 대해서도 잘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바르(Barr, 1992: 143)가 이야기하듯, “오래 된 사전들의 경우 이 의미론적 분석은 불완전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재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1.1.4. 결합관계

사전에는 일정량의 통사론적 정보도 들어 있다. 단어는 어떤 구문에 쓰이느냐에 따라서 의미의 미묘한 차이를 나타낼 수 있다. 이러한 예로는 관용적 표현이 있다. 어떤 동사가 어떤 전치사를 요구하는지, 혹은 동사 뒤에 부정사가 오는지 아닌지 등을 아는 일은 중요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통사론적 정보이고 의미론적 정보와는 질적으로 다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사전 중 다수가 통사론적 자료와 의미론적 자료를 혼합해서 제공한다. 이것은 사전 사용자를 오도하여 어떤 단어의 의미에 대해 명확하게 알기 힘들게 할 수도 있다.

1.2. 정의 vs. 대응어휘

전통적인 히브리어 사전 다수가 갖고 있는 큰 약점이 있다. 그것은 사전에서 어떤 히브리어 단어의 의미를 주지 않고, 그 단어의 대응어휘 한두 개만을 목표언어로 주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런 현상은 비단 히브리어 사전뿐만이 아니라 전통적인 다른 언어 사전들도 마찬가지이다. 이는 유감스러운 현상이다. 왜냐하면, 대응어휘를 나열하게 되면 어떤 단어의 의미에 대해 제한적인 정보만을 주기 때문이다. 바르(1973: 119-120)에 의하면, 대응어휘는 “그 자체가 의미가 아닐뿐더러 의미를 말해주지도 않는다. 의미는 실제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데에 있는 것이다. 그리고, 실제 의미론적 분석에 있어서는, 히브리어 자체에 들어 있는 의미의 지시표나 꼬리표들이 대응어휘보다 더 가치 있다.”

대응어휘의 사용은 더 나아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어떤 사전에 들어 있는 한 표제어에 대응어휘가 세 개 있을 때, 대부분의 보통 독자들은 그 표제어의 의미가 세 가지라는 인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이 세 대응어휘가 사실상 서로 유의어일 때도 마찬가지이다.

한 단어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간단한 대응어휘에 들어 있는 정보보다는 훨씬 더 많은 양의 정보가 필요하다. 흥미롭게도 단일 언어로 된 많은 사전들은 표제어를 훨씬 더 잘 다루고 있다. 이러한 부류의 사전은 대개 정의를 내림으로써 각 단어의 의미를 설명한다. 이러한 사전의 좋은 예는 *The Concise Oxford Dictionary*(Sykes, 1983)이다.

그런데, 이러한 방식의 사전이 대응어휘를 사용하지 않고 정의를 내리는 이유가 단지 단일 언어로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흔히 생각하기 쉽다. 어떤 단어에 대해 대응어휘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유의어가 한 언어 안에서는 찾을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위어즈비카(Wierzbicka, 1985: 5)에 의하면, “외국어 단어 속에 기호화된 개념들의 문제에 있어, 특히 문화적으로 동떨어진 경우, 한 단어와 한 개념을 직관적으로 연결하는 것이 힘들게 된다. 그 언어의 어휘에 기호화된 문화적 세계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충분한 정의를 내리는 것뿐이다.”

1.3. 의미의 분석

그러나, 어떤 표제어의 정의를 내리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다. 그것은 정의를 제대로 내리기 위한 방법론을 확립하는 일이다. 한 단어의 의미는, 백과사전과 같이 엄청난 양의 정보를 주는 긴 서술과 기계적으로 일치하지는 않는다. 로(Louw, 1985a: 58)에 의하면, 그러한 긴 설명은 “그 단어의 의미를 설명해주는 것이 아니라 관련된 개념이나 대상에 대한 긴 부연설명을 하는 일일뿐이다.” 나이다가 진술하는 대로, 단어들은 “다른 단어들과의 조직적인 대조를 통해서만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다. 이 때 다른 단어들이란 원 단어들과 어떤 자질은 공유하면 서도 어떤 자질에 관해서는 대조가 되는 것들을 말한다”(Nida, 1975a: 32). 다른 말로 하면, 각 단어는, 그 단어와 의미의 일부를 공유하는 단어들이 모인 집합에 속하는 원소인 것이다. 이런 집합을 **의미 범위** 혹은 **의미 영역**이라고 부를 수 있다. 한 단어의 의미는, 같은 의미 영역에 속하는 다른 단어들과 함께 연구할 때에만 완전하게 이해될 수 있다.

이로써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떤 언어의 사전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먼저 의미 영역의 집합으로부터 시작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 다음 문제는, ‘어디로부터 그러한 의미 영역이 얻어지는가?’이다. 모든 개별 언어에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인 의미 영역의 집합이 있는가? 불행하게도, 상황은 그리 간단치 않다. 만약 단어의 의미가 실제 세계의 어떤 실체와만 관계되는 것이라면, 어떤 보편적인 영역의 집합이 제안될 수 있는 가능성은 무척 높을 것이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나이다(1975b: 14)가 말하는 대로, 단어의 의미와 관계하는 것은, **세계**

속에 있는 실재(들의 집합)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개념들의 집합)인 것이다. 그리고, 이 개념들은 단어나 문화에 따라 변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각 개별 언어에 대한 의미론적 연구를 철저히하고도 조직적으로 행한 후에야, 그 언어의 사전을 제작하는 첫 일보를 감히 내디딜 수 있는 것이다. 번역가들이 번역을 함에 있어서, 원어와 목표언어 사이에 문화적으로나 세계관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는 경우, 이 문제는 매우 중대한 문제가 된다. 히브리어-영어 사전이 그러한 경우이다. 히브리어 구약성서 본문과 그 세계관이 2000년도 전의 것임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2. 현존하는 히브리어 사전들

히브리어 학자들이 지금까지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사전 중 가장 오래 된 사전은 게제니우스(Gesenius)가 편찬한 것이다. 아래에서는 이 사전을 포함하여 그 이후에 편찬된 몇 개의 사전에 대해서 논의할 것이다.

2.1. 게제니우스

히브리어 사전의 고전은 게제니우스가 편찬한 사전이다. 첫 번째 판은 1810년경에 독일어로 출판되었다. 이 고전적인 사전은, 1842년 게제니우스 사후에도 오랜 기간에 걸쳐 여러 번 개정되고, 번역되고, 재출판되었다. 이 사전은 동족어의 동족어휘 및 다른 학자들의 저작에 대한 인용 등 귀중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최신 현대판이라고 할 수는 없다.

2.2. 브라운-드라이버-브릭스(Brown-Driver-Briggs)

다른 유명한 사전은 브라운, 드라이버, 브릭스가 편찬한 사전이다. 1891년에 제 1부가 출판되었고, 1906년에는 완성이 되었다. 영어로 기록된 이 사전은, 1854년 출간된 로빈슨의 게제니우스 영역판에 기초한 것이었다. 편집진은 19세기 후반에 이루어진 고고학과 언어학에서 발견된 성과를 사전에 많이 포함시켰다. 물론, 게제니우스의 이후 판들도 그러한 자료를 많이 아울렀다.

이 사전(이후, BDB)의 편제는 조금 다르다. 모든 어근은 알파벳순으로 나열되어 있고, 그 어근으로부터 파생되었다고 추측되는 표제어들은 그 어근 아래에 실어놓았다. 이러한 방식의 이점은, 사전 사용자가 각 어근과 그 파생어들의 의미론적 관계를 알기가 쉽다는 것이다. 이 점은 중요한 것이다. 그 이유는 어떤 어근과 그 파생어들이 의미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방식에는 불리한 점과 위험한 점도 있다. 즉, 이런 방식의 사전에서는 표제어가 어근이 아닌 경우 찾기가 힘들다는 것이다. 특히 불규칙이 심한 동사의 경우에는 표제어의 어근을 찾기 위해서 엄청난 지식이 필요하다. 어떤 경우는 어근이 될 수 있는 것이 두 개 이상인 경우도 있다. 설상가상으로, 한 파생어의 어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 있지 않아 의견 차이를 보이는 경우도 있다. 또 위험한 점은, 사전 사용자가 어떤 어근과 그 파생어의 의미 관계를 지나치게 단순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한 단어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문맥 안에서 그 단어를 연구해야 한다. 단어의 어원적인 면이 무시되어서는 안 되지만, 파생된 단어의 다수는 다소간의 의미 변화를 겪기 때문이다. 이 때 변화된 의미는 문맥을 통해서만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비판이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BDB는 학생들을 위해서나 학자들을 위해서 아주 귀중한 도구로 평가되어야 한다. 처음 출판된 지 거의 한 세기가 지났음에도 이 사전은 여전히 유용하다. 무라오카(Muraoka, 1995: 87)가 지적하는 대로, “BDB와 게제니우스 17판은 여전히 살아 있다.” 그러나, 주지하는 대로 그 동안 사전학적 지식은 엄청나게 변화였고, 이제는 그 지식이 성서 히브리어에도 적용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2.3. 쾰러-바움가르트너(Koehler-Baumgartner)

BDB가 출판된 지 반 세기쯤 지난 후, *Veteris Testamenti Libros*(1953)에서 쾰러와 바움가르트너가 편찬한 사전 첫 번째 판이 출판되었다. 쾰러는 히브리어 부분을 맡았고, 바움가르트너는 아람어 부분을 맡았다. 첫 번째 판은 독일어와 영어로 대응어휘를 제시한 점에서 2개 국어를 사용한 것이었다. 1958년, 쾰러 사후 2년이 지난 뒤에 제 2판이 나왔다. 이것은 사실상 첫 번째 판을 그대로 재출판한 것인데, 바움가르트너가 부록을 더하였다. 부록에는 독일어-히브리어 어휘목록과 독

일어-아람어 어휘목록이 포함되었고, 1판에 대한 정오표와 추가 사항 및 그밖에 다른 정보가 포함되었다. 이 인상적인 사전의 제 3판의 1권은 1967년에 출판되었는데, 불행하게도 이 판에서는 2개 국어로 풀이를 제시하지 않았다. 그래서, 독립된 영어 판이 필요하게 되었는데, 그 1권의 영역판은 1993년에 등장하였다. 이 사전의 히브리어 부의 마지막 권은 1999년 7월에 출판되었다. 앞으로 마지막 한 권이 더 나올 예정인데, 이 부분에는 아람어 부분과 참고문헌만이 포함될 것이다.

BDB와는 달리, 이 사전은 게제니우스에 근거하지 않았다. 쾰러와 바움가르트너의 연구는 지금까지 언급했던 사전들보다 훨씬 더 최근의 일이기 때문에, 그들이 편찬한 사전은 훨씬 현대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편제에 있어서는 게제니우스와 그리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이 사전이 BDB와 다른 점은, 모든 표제어가 알파벳순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점이다. 그리하여, 표제어를 찾는 일이 BDB에서보다 더 쉽다. 또한 한 어근에서 나왔다고 생각되는 파생어들은 그 어근 아래에 기재되어 있어서, 사전 사용자들은 여전히 어근과 그 파생어들 간의 관계를 볼 수 있다.

이 사전(이후, KB)이 앞의 사전들과 다른 점은, 1958년 판의 서문에서 밝히고 있듯, 사전이 기초하고 있는 히브리어 본문이 “서기관들을 오류나 다른 실수들을 제거한”(xi) 본문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1967년에 발행된 제 3판의 1권 서문에서는 제 1판의 본문 수정이 많이 포기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B는 지금도 여전히 수정된 본문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데, 지난 몇 십 년 간 구약성서 히브리어 본문에 관한 본문 비평적 지식이 많이 변했음에도 여전히 그러하다. 구약성서 히브리어 본문 프로젝트(HOTTP)의 결과를 대강 일견하기만 해도 이 점은 분명해질 것이다.

KB는 그 사용자에게 귀중한 정보를 많이 제공해 주는 유용한 사전이다. 그러나, 사전학적 관점에서 볼 때 BDB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제공해 주지는 못한다.

2.4. 클라인스

클라인스가 편집한 *The Dictionary of Classical Hebrew*의 제 1권이 1993년 발행되었다. 벌써 제 4권까지 출판되었는데, א부터 כ까지 포함하고 있다. 서문에 의하면 이 사전은, “히브리어 사전학 전통에 있어서

중요한 변화를 기록”(p. 7)하는 것이다. 이 사전이 다른 히브리어 사전과 다른 점은 사전에서 “언어의 국면을 고전 히브리어로 지정하고 정의하고 있다”(p. 14)는 점이다. 이 사전은 기원후 200년 이전의 모든 히브리어 본문을 망라한다. 구약성서 히브리어 외에 이 사전이 포함하는 본문은, (1) 벤 시라, (2) 콤란 사본과 관련 본문, (3) 비문과 다른 부차적인 본문 등이다.

그 외에도 이 사전이 다른 사전들과 다른 점은 현대 언어학의 원리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이다. 머리말에서는 이 사전의 초점이 “각 단어의 의미나 번역 등가성이 아니라, 단어가 사용되는 유형과 결합”(p. 15)이라고 말한다. 또한, “비일상적이고 어려운 단어보다 상용어에 보다 더 주의를 기울였다”(p. 15)고 말한다.

사전의 편제는 게제니우스나 BDB와 같아서, 단어는 알파벳순으로 정리되어 있다. 각 표제어에는 위에서 언급한 네 가지 서로 다른 본문들로부터 얻어낸 다양한 용례가 실려 있다. 이 자료 다음에는 단어의 품사가 구분되고, 또 표제어를 밝혀주는 대응어휘가 나온다. 그리고 나서 표제어는, 모든 형태론적 형태가 망라되고, 의미론적으로 분석되며, 결합 관계가 (품사에 근거하여) 분석된다. 또 어형변화표(유의어, 반의어 등)가 분석되고, 마지막으로 관련 표제어가 다수 기록되어 있다.

클라인 사전(이후, DCH)에는 다른 셈족어와의 비교 자료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전통적 사전을 사용하는 이들 다수가 동족어휘의 의미를 일관되게 오해하여 왔기 때문이다.”(pp. 17-18) DCH가 타 사전과 구별되는 중요한 점 또 하나는, 의미론적 정보와 통사론적 정보, 그리고 어형 변화 정보를 구별하고자 하였다는 점이다. DCH는 귀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잘 조직화된 사전이다. 또 다른 장점은 —대부분의 경우— 단어의 모든 용례가 망라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렇게 폭넓은 본문을 포함하고 있는 사전 또한 미증유의 것이다. 그리고 DCH는 KB와 비교할 때 히브리어 본문에 수정을 가하는 일도 거의 없다.

그러므로, 두말할 것 없이 이 사전은 히브리어 사전학 역사가 진일보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CH는 많은 약점 또한 지니고 있다. 불행하게도 고전 히브리어에 대한 구조적인 의미론적 분석(이 표현의 정의를 알기 위해서는 1.1을 보라)이 이 사전에는 없다. 그래서 각 표제어의 의미론적 분석은 매우 주관적인 요소들을 지니게 된다(p. 19).

또한, 머리말의 같은 면에서 저자는 “우리가 의미를 지각하는 것은 대개 영어의 의미론적 구조에 의존한다. 바로 이것이 외국어 사전이 마땅히 취해야 할 모습이다”라고 말하기까지 한다. 무라오카(1995: 91)가 이 문장에 대해 “매우 비정상적이고 교조적인 진술”이라고 지적하는 것은 타당하다. 물론 이 말이 구약성서를 영어로 번역하려는 성서 번역가에게는 참일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언어로 번역 작업을 수행하려는 이들에게는 수용되기 힘든 진술인 것이다. 그들이 히브리어 본문의 의미를 이해하려면 또 다른 영어 사전이 필요하게 된다. 히브리어 사전은 히브리어 안에서 발생하는 의미에 대해 알려줄 수 있어야 한다. 만일 영어의 의미 구조에 지나친 강조를 두게 된다면, 실제 히브리어에 대해서는 이해하기 힘들게 되는 것이다. 히브리어에 대해 구조적인 의미론적 분석을 하게 될 때에만 그 언어가 말하려 하는 바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그러한 분석에 근거해야만 그 언어에 적합한 의미 영역을 결정할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머리말이 말하고 있는 바와는 달리, DCH의 저자들은 현대 사전학이 제공해 주는 지식을 전부 다 사용하고 있지는 못한 것이다.

바로 앞에서 설명한 것과 관련되는 또 다른 문제점은, 각 표제어(또는 하위 표제어)의 의미가 정의되어 있지 않고, 대응어휘(들)로 제시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렇게 되면 어떤 표제어가 지니고 있는 다양한 의미들을 명확하게 개관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그 결과, 이 사전은 우리에게 필요한 사전과는 다른 모습의 것이 되어버렸다.

다른 문제점은, 렉트(de Regt, 1997: 71)가 말하는 대로, “단어의 의미들이 일반적인 출현 빈도에 따라 정렬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방식이 줄 수 있는 정보가 매우 흥미로울 수는 있으나, 이는 의미론적인 것이 아니므로 한 표제어의 여러 의미를 조망하는 일이 어려워질 수 있고, 또 의미들이 서로 연관되어 있는 방식을 이해하는 일도 쉽지 않게 된다.

마지막으로 제기할 수 있는 질문은 DCH가 지나치게 많은 정보를 포함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것이다. 과연 אָב “아버지”라는 단어를 주어로 취하는 동사들을 모두 나열할 필요가 있는 것인가? 또는, יָרַח를 목적으로 취하는 모든 동사들을 나열하는 일이나, 같은 단어를 취하는 모든 유형의 명사절을 나열하는 일이 꼭 필요한 것인가? 만약 오늘날 그러한 정보가 정말 필요하다면 같은 유의 정보를 제공해 주는 컴퓨터 프로그램이 있지 않은가? 야곱이나 다윗이 아니라, 모세가 동

사 יָרַח “잡다, 쥐다, 쥐하다”의 주어가 되는 문장을 모두 아는 일의 의미론적으로 어떤 유익을 줄 수 있는가? 사전이 한 단어에 대해 모든 정보를 포함하는 백과사전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 의미론적으로 적절한 정보만을 제공하면 되는 것이다.

2.5. 알론소 세켈

DCH 제 1권이 세상에 나온 후 1년이 지나서 또 하나의 주목할 만한 사전이 출판되었다. 세켈(Luis Alonso Schökel)이 몰라(Víctor Morla), 칼라도(Vicente Collado)와 함께 *Diccionario bíblico hebreo-español*(이후, DBHE)을 편찬한 것이다. 이 히브리어-스페인어 사전은 시리즈의 첫 권이 아니라 한 권으로 א부터 א까지 포함하는 것이다. 물론, 아직까지 이 사전이 제한된 이들에게만 사용 가능한 것은 유감스러운 점이다. 그렇다고 이 말이 이 인상적인 사전이 스페인어 사용권에게만 있다는 사실을 시기하려는 것은 아니다. 오직 우리가 바라는 바는 이 사전이 속히 다른 곳에서도 사용될 수 있었으면 하는 것이다.

이 사전은 게제니우스, KB, DCH와 마찬가지로 알파벳순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DCH와 비슷한 점이 많다. DCH처럼 잘 조직화되어 있으며, 어원학적 자료나 비교언어학적 자료를 포함하지 않는다(p. 8). DBHE는 DCH처럼 많은 자료를 전해주지는 않는데, 이는 불리한 점이라기 보다는 유리한 점이다. DCH의 모든 자료가 의미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DBHE야말로 현대 사전학적 지식을 종합하려고 노력한 현대적인 사전이라고 말해질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다수의 표제어들이 —불행히도 전부는 아니다— 대응어휘(의 나열)로 제시되기보다는 서술적인 문장으로 설명되어 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사전 제작자가 일종의 의미 영역을 사용하여 단어가 서로 다르게 사용되는 방식을 구별하려 했다는 점이다. 예컨대, אָבֶן “돌”이라는 표제어는 의미 범주에 따라 9개의 하위 표제어로 구분된다. 즉, 자연 물질, 건축 자재, 무기, 장신구, 상업용, 종교 문화적 용도, 이방 종교적 용도, 기상학적 용도, 비유적 용법이다. 이는 매우 유용한 점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 사전은 단점 또한 많이 갖고 있다. DCH와는 달리, DBHE는 각 표제어가 사용되는 구절을 열거하지 않고 있다. 성서 인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은 표제어가 (거의) 전부이다. 그 외에도 의미 영역은 중요 어휘나 전문 어휘에만 사용된 점도 단점의 하나이

다. 잘 사용되지 않는 어휘나 덜 중요한 어휘의 경우는 DBHE나 다른 전통적인 사전들이 크게 다르지 않다. 또한, 히브리어에 대한 구조적인 의미 분석(이 표현의 정의를 알기 위해서는 1.1을 보라)이 빠진 듯하다. 그리고 사전의 구성 방식 때문에, 동일 의미 영역에 속하는 서로 다른 (하위) 표제어들을 비교하는 일이 불가능해진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의미 영역에 따라 정리된 색인이 매우 유용할 수 있다. 물론, 모든 표제어가 의미론적으로 분류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 또한 한계를 지닐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단점들에도 불구하고, DBHE는 매우 훌륭한 사전으로서, DCH를 포함한 이 영역의 모든 작업들보다 진일보한 작업이다.

3. 로와 나이다의 사전

1980년대가 막바지에 이를 무렵, 전혀 새로운 사전이 빛을 보게 되었다. 로와 나이다가 스미드(Rondal B. Smith)와 먼손(Karen Munson)의 도움을 받아 편찬한 *Greek-English Lexicon of the New Testament Based on Semantic Domains*가 그것이다. 이 사전은 현대적인 의미론적 분석에 근거하였고, 그 결과 이전 것들과는 철저히 다른 방식으로 편제되었다. 이후로 이 사전을 LN으로 부르려고 한다.

이 사전을 펼치는 사람은 알파벳순으로 된 그리스어 단어들인 아닌, 93가지 의미 영역을 보게 된다. 이 영역은 지리적 대상과 특성에서 시작하여 인명과 지명에까지 이른다. 대부분의 의미 영역에는 몇 개의 하위 영역이 포함된다. 이 하위 영역에서도 단어들은 알파벳순으로 정렬되어 있지 않다. 대신, 보다 **일반적인** 의미를 지니는 단어들 나오고 그 뒤에 보다 **특수한** 의미를 지니는 단어들 나온다. 특정 단어를 찾아가기 위해서는 첨가된 색인을 참고하면 된다. 알파벳순으로 된 색인에서 표제어의 위치를 알아낸 후, 그 단어가 속해 있는 다양한 의미 (하위) 영역으로 찾아가면 된다.

각주가 많이 사용되었는데, 사전 편집자는 각주에서, (일군의) 표제어들이 다른 영역이 아닌 현 영역으로 분류된 이유를 설명해 주거나, 표제어를 다른 가능한 기존 영역에 포함시키지 않고 새 영역을 제안하여 포함한 이유를 설명해 준다.

로와 나이다가 단어를 분류하기 위하여 가장 먼저 구별한 것은 세

가지이다(LN 머리말의 vi 쪽을 보라).

1. **고유 지시사**: 유일무이하며, 고유한 대상을 지시하는 단어. 즉, 고유 명사
2. **종 지시사**: 대상, 사건, 속성의 종을 지시하는 단어. 즉, 일반 단어
3. **표시사**: 대상, 사건, 속성과 같은 단어들 간의 관계를 지시해 주는 단어. 같은 범주를 나타내면서 의미론에서 쓰이는 다른 용어로는 관계사라고 한다.

사전의 머리말 첫 면(p. vi)에 의하면, 1-12 영역은 대상을 다루고, 의미 영역 13-57은 사건을 다루고, 의미 영역 58-91은 관계사를 포함한 속성을 다룬다. 그런데, 우리가 방금 보았듯이, 이것은 그들이 같은 면에서 주장하는 바와는 약간 모순되는 것이다. 로와 나이다는 LN 89와 LN 91에서 표시사를 다룰 것이라고 말했는데, 이것들은 종 지시사에 속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다면 로와 나이다는 어떻게 속성과 관계사를 한 종류로 다룰 수 있는가? 우리는 로와 나이다가 서로 다른 두 개의 모델을 동시에 다루는 듯한 인상을 받게 된다. 이로써 혼란이 생기는 것이다. 어휘 단위를 대상, 사건, 속성, 관계사로 단순하게 나누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로와 나이다의 머리말에 근거하여 의미 영역 58-88은 속성을 다루고, 의미 영역 89-91은 관계사를 다룬다고 결론지을 수 있을 것인가? 확실하게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또한 LN 92(담화 지시사)의 위치도 이 틀 속에서 분명치 않다. 그들의 방법론에 따라 관계사에 포함되어야 할 것인가? 가능할 것이다. 이런 이유 등으로 본 연구에서는 로와 나이다가 제안한 고유 지시사, 종 지시사, 표시사의 범주를 따르지 않으려 한다. 대신 **모든** 어휘 단위를 보다 단순하게 4 가지 범주—대상, 사건, 속성, 관계사—로 나누려 한다.

로와 나이다가 의미 영역의 전범위를 확립할 때 사용한 기초는 소위 “3대 의미 자질—공유 자질, 변별 자질, 부가 자질”(p. vi)이다. **공유** 자질은 어떤 어휘 요소들이 공통으로 지니고 있는 의미 자질이다. 그리고, 각 어휘소가 다른 어휘소와 구별되어 갖는 자질이 변별 자질이다. 마지막으로, 대부분의 어휘소에는 일군의 부가 자질 또한 포함하는데, 이 자질들을 주변적인 것이며 제한된 문맥 속에서만 자기 역할을 한다. 로와 나이다의 방법론에 대해 더 알기를 원하는 이들은 로(1985b)와 로와 나이다(1992)를 참고하라.

4. 로와 나이다의 방법론과 성서 히브리어

신약성서 그리스어를 공부함에 있어서 로와 나이다의 사전은 매우 유용한 도구이다. 그렇다면 이 사전이 성서 히브리어에 갖는 의미는 무엇일까? 학계는 같은 원리로 된 히브리어 사전이 절실한 입장이다. 이 신약성서 사전이 완성된 **후에야** 히브리어 사전이 만들어진다는 점은 무척 유감스러운 일이다. 구약성서가 신약성서에 엄청난 영향을 끼쳐왔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Mulder, 1979: 8). 구약성서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 신약성서를 제대로 이해하는 일이—불가능하지는 않다 하더라도—무척 어려운 일이라고 말하는 것은 과장된 표현이 아니다. 신약성서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다수가 그 기원을 구약성서에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단어들을 의미론적으로 분석하려 할 때도 구약성서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의미 영역에 기초한 새로운 성서 히브리어 사전의 필요성을 보았던 학자는 스완손(James A. Swanson)이다. 1997년 Logos Research Systems™에서는 히브리어와 아람어를 모두 포함한 전자판 *A Dictionary of Biblical Hebrew*를 편찬하였다.¹⁾ 이 구약성서 사전은 로와 나이다가 확립한 의미 영역을 사용한 것이다. 각 단어는 알파벳순으로 정렬되어 있고, 모든 (하위) 표제어는 로와 나이다의 (하위) 영역 중 하나와 연결된다. 스완손은 (하위) 영역의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색인 번호나 그 번호들의 범위를 사용하고 있다. 그 색인을 클릭하면 로와 나이다의 사전을 볼 수 있게 된다.

저자의 서문에서 스완손은 이 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한다. 그가 말하는 바에 따르면, “책의 목적은 히브리어/아람어의 사고 구조와 그리스어의 사고 구조가 동일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다. 구약성서의 어휘소와 그리스어 어휘소 중에서 의미에 있어서 동일하게 수학적으로 일치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는 전혀 없다. 또한 그리스어의 의미 영역 구조가 히브리어 문화의 의미 영역 구조에 강제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려는 것도 아니다.” 스완손이 로와 나이다의 체계를 사용한 것은 주로 실용적인 이유에서이다. 그는 이 방법론을 “수만 가지 구약성서 어휘소를 알 수 있도록 하는 조직적인 원

1) 전자 사전에 대해서는 이 장 뒷부분에서 다시 논의할 것이다.

리”라고 간주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스완손은 “그리스어 신약성서와 히브리어/아람어 문화의 의미의 영역 간에는 최소한 유비적인 연결이 있다”면서, “이 영역들 중 다수는 세계의 거의 어떤 문화와도 연결될 수 있는 것이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는 또한 “히브리어의 어떤 의미 영역은 그들의 문화적 사고 방식과 관련하여 보다 주의 깊게 연구되고 논의되어야 한다”는 점에도 동의한다.

스완손의 사전은 분명 유용한 도구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인정한 방법론적 문제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어떤 유비점과 유사점이 있다 하더라도, 성서 히브리어와 신약성서 그리스어는 기본적으로 전혀 관련이 없는 언어이다. 게다가, 구약성서의 배경이 되는 문화와, 헬레니즘의 영향을 받은 신약성서의 배경이 되는 문화에는 커다란 차이점이 존재한다. 그 결과, 로와 나이다가 사용한 93가지 의미 영역이 히브리어 구약성서에는 들어맞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성서 히브리어의 특수한 요구를 규정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그 특수한 요구는 의미론적 분류의 기본 틀에 최종적으로 통합되어야 한다. 그리고 나서야, 성서 히브리어와 그 이면의 세계관 모두를 충분히 공정하게 다루는, 언어학적으로 적절한 의미론적 토대에 근거한 히브리어 사전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 외에도, 로와 나이다의 방법론은, 성서 히브리어 사전의 의미 영역을 확립하기 위한 기본 틀로 사용하기에는 문제점들을 많이 지니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아래에서 다루어질 것이다.

4.1. 종 지시사

위에서 보았듯이 로와 나이다는 어휘 요소들의 종류를 지칭하는 모든 어휘를 세 범주—즉, 대상, 사건, 속성(관계사를 포함한)으로 나누었고, 영역의 목록은 그에 따라 구별되었다. 그러나, 이 점에도 불구하고, 이 세 종류가 분리되지 못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

예를 들어, (개개) 사람으로 이름지어진 의미 영역(LN 9)이 있다. 엄격하게 말한다면, 이 영역에 속한 단어 중 많은 수가 다른 영역에도 속해 있다. 예컨대 군인이란 단어의 경우, 군사 활동(*Military Activities*, LN 55)에도 속해 있으며, 목수라는 단어는, 건축, 건설(*Building, Constructing*, 45) 범주에도 속해 있다. 여기서 대상은 사건으로 분류되었다. 이 경우에 있어서 사람과 그 사람이 하는 역할이 밀접하게 연관

되어 있는 점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비슷한 문제는 영역 LN 88에서도 만날 수 있다. 도덕적 윤리적 특질과 그 관련된 행위 영역에서는 속성(e.g., “죄가 있는”, *sinful*)과 사건(e.g., “죄”, *sin*)과 대상(e.g., “죄인”, *sinner*)이 속성으로 묶여져 있다. 이 경우에도 위 단어들이 이렇게 한데 묶인 이유는 실용성이라는 측면에서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어학적으로 엄밀히 따진다면, 이것은 이상적인 모습은 아니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 중 하나는 이런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기본 틀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학문적으로 만족스러우면서 실용적인 방법론을 찾고자 하는 것이다.

4.2. 의미 영역

로와 나이다의 사전을 연구하고 서로 다른 의미 영역들을 살필 때 피할 수 없이 받게 되는 인상이 있다. 그것은 사전에서 사용되고 있는 의미론적 틀의 토대가 두 가지 구별되는 정보 유형을 혼합한 것이라는 점이다. 다음 예가 이 점을 설명해 줄 것이다.

예를 들어, 부착(*Attachment*, LN 18)이란 의미 영역을 보자. 표제어 18.4는 동사 ἀρπάζω로서, “제거하거나 제어할 목적으로 힘을 써서 잡다/취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 동사는 소유, 전이, 교환(*Possess, Transfer, Exchange*, LN 57) 영역의 표제어 57.235에서도 발견되어, “어떤 물건을 힘을 써서 다른 이로부터 빼앗는 일, 대개 기습 공격이라는 의미를 지닌다”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 동사는 37.28에도 나오는데, 이 영역은 제어, 지배(*Control, Rule*, LN 37)이다. 여기서 이 동사는 “힘을 써서 지배권을 얻다”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 세 정의를 주의 깊게 살펴보면 공통점을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비록 이 세 표제어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서로 다른 부가적인 자질을 지니고 있기는 하지만, 훨씬 더 많은 수의 의미 자질을 공유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ἀρπάζω의 세 용례가 보여주는 공유된 자질을 살펴보면, 여기에 이 동사에 관한 중요한 어휘 정보가 있음을 알게 된다. (불행하게도, 이사전이 구성된 방식 때문에 이 정보를 알기는 쉽지 않다. 이에 대해서는 이후에 더 다루도록 하겠다.) 위에서 제시된 세 가지 정의에 근거하면, ἀρπάζω 의미의 기본 정의를 쉽게 알 수 있다. 그것은 “힘을 써서 어떤 대상을 취한다”이다. 그러나, 이 동사가 쓰이는 각

각의 문맥 때문에, 우리는 다른 의미 요소에 주목하게 되는 것이다. 그 요소는 변별적인 것이거나, 부가적인 것일 수 있는데, 그러한 요소들 때문에 특정한 문맥 속에서 ἀπαύζω의 정확한 의미를 규정할 수 있게 된다. 로와 나이다의 그리스어-영어 색인을 일견(一見)하기만 해도 다른 예를 많이 볼 수 있다. 로와 나이다가 자주 사용하는 일반성/특수성의 구별은 여기서 별 도움이 안 된다. 표제어 18.4가 37.28이나 57.235보다 더 일반적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동사 ἀπαύζω를 포함하는 문장이 있어야만 그 문맥 속에서의 동사의 정확한 의미를 규정할 수 있는 것이다.

로 (1991)은 단어의 의미와 관련하여 **어휘** 의미와 **문맥** 의미라는 중요한 구별을 지었다. 전자는 의미에 있어 “단어의 내부적이고 본래적인” 측면을 다룬다. 반면 후자는 그 단어가 발화되는 상황이 제공하는 정보와 관련된다. 이 때, 상황은 “그 문맥에 영향을 끼치는 다른 단어/구와 더불어 특정한 문맥을 이루는 상황이나 대상과 관련되는 것이다.” 이 같은 구분은 – 좀더 정확히 공식화해야 할 필요가 있기는 하지만 – ἀπαύζω와 같은 단어를 효율적으로 다루는 데 일조한다. 위 단어의 어휘 의미와 문맥 의미를 구별하는 일은 가치 있는 일이다. 어휘 의미는 최소한의 문맥 속에서 그 동사의 의미를 다루는 것이다. 문맥 의미는 보다 광범한 문맥 속에서의 의미를 다루는 것이다. 단어의 어휘 의미는 그 단어가 사용되는 모든 문맥에 **공유된** 의미 자질에 집중한다. 반면, 문맥 의미는 **모든** 의미 자질들을 고려한다.

4.3. 비유적 어법

히브리어 구약성서에는 여러 문학 장르가 있다. 그 중 상당 부분이 시이다. 히브리어 시의 특질 중 하나는 (다른 많은 언어에서와 마찬가지로) 비유적인 어법을 사용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시로 쓰여져 있지 않은 본문에서도 비유적인 어법은 매우 많이 만날 수 있다. 어떤 비유법의 경우에는 성서 히브리어에서 너무나 흔하여 특별하고 전문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이다. 그러한 것들은 구조화된 어법의 일부인 듯하다.

כּוּנָה의 예를 들어보자. 문자적으로, 이 단어는 “칼”을 의미하며, 로와 나이다의 분류에 따르면, LN 6(인공물, *Artifact*)에 속할 것이다. 그러나, 구약성서에서 이 단어의 쓰임을 전부 조사해 보면, 비유적으로 많

이 쓰였음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 칼이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활동에 초점을 둘 때, 그것은 “폭력, 공격, 전쟁”이 된다.

만일 **קַלֵּף**이 인공물로서의 “칼”을 지칭하는 문맥과 비유적 어법으로의 “폭력, 공격, 전쟁”을 지칭하는 문맥을 쉽게 구분할 수 있다면 문제가 될 것이 없다. **קַלֵּף**을 인공물로 분류하고, **קַלֵּף**를 폭력, 해, 파괴, 살인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이 두 가지 가능성 중 택일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것이다. 예레미야서 47장 6, 7절을 예로 들어보자.

여호와와 칼이여 네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네 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쉴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를 명하셨은즉 어떻게 쉬겠느냐 아스글론과 해변을 치려 하여 그가 명령하셨느니라

위는 “칼”이 다양한 의미로 쓰인 여러 예 중 하나에 불과하다. 여기서 이 단어는 인공물인가? 그렇다. “집”이란 단어가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이 단어는 사건인가? 그렇다. 이 단어가 이 문맥에서 실제로 의미하는 바가 “전쟁”이기 때문이다. 바로 이 점이 로와 나이다의 사전 구성 방식이 성서 히브리어에 적용될 때에 생기는 문제점이다. 이 문제는 비단 이 단어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사실상 이 문제는 히브리어에서 구조적인 문제가 된다. 기본적으로는 특정한 대상을 지칭하는 단어들 중 많은 수가, 동시에 그 대상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활동을 지칭하기도 하는 것이다. 그밖에도 히브리어에서는 기술적으로는 사건을 뜻하면서도, —어떤 문맥에서는— 그 사건의 줄거리 속에서 가장 두드러진 대상을 지칭하는 단어들도 있다.

위와 같은 패턴 때문에, 로와 나이다가 알파벳순을 거절하고 의미영역을 가지고 단어를 편제한 것이 성서 히브리어에서는 잘 안 맞을 수도 있다. 한 특정 단어가 사용될 수 있는 다양한 의미에 대해 충분히 알려주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바로 이 점이 히브리어 의미론을 파악하고자 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인 것이다. 우리가 패턴을 놓친다면 본질을 놓치게 될 것이다! (로와 나이다의 사전 제 2권에 있는 것과 같은) 색인으로는 그 간격을 충분히 메울 수 없다.

5. 새로운 제안

이제 따라오는 문제는 다음과 같다. 로와 나이다의 틀을 수정하여 그 약점들을 (최소한 성서 히브리어의 입장에서만이라도) 극복해낼 방법이 있는가? 그리하여 새 사전을 위한 건전한 토대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한 답은 “그렇다”이다. 본 연구의 목적 또한 수정된 틀을 제안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로와 나이다의 작업이 우리에게 일러준 중요한 통찰을 아우르면서, 성서 히브리어 같은 언어나 그 이면에 있는 문화·세계관을 공정하게 대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일군(一群)의 커다란 수정이 제시될 것이다.

5.1. 어휘 영역 vs. 문맥 영역

앞에서 이미 어휘 의미와 문맥 의미를 구별해 보았다. 사전의 표제어는 하나 혹은 그 이상의 어휘 의미를 지닌다. 여기서 어휘 의미는 그 어휘소의 여러 용례에서 공유되고 있는 의미 요소에 초점을 두는 것이다. 여기에 더하여, 각 어휘 의미에는 하나 이상의 문맥 의미도 수반된다. 문맥 의미는 이 표제어가 사용되는 문맥의 모든 관련 사항을 고려하는 것이다.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어휘 의미 영역과 문맥 의미 영역을 구별해야만 한다. 즉, 대부분의 사전 표제어들을 두 번 분류하여 어휘/문맥의 꼬리표를 달아야 한다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모든 (하위) 표제어들이 하나 혹은 그 이상의 어휘 의미를 지닐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하나 혹은 그 이상의 어휘 의미 영역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말이다. 또, 어휘 의미 각각에 대하여 하나 혹은 그 이상의 문맥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각 문맥은 관련되는 정보를 제공하는데 이는 하나 혹은 그 이상의 문맥 의미 영역에 속하게 된다.

예컨대, 군인이나 목수 같은 표제어의 경우는 모두 어휘 의미를 하나만 가지고 있다. 어휘적 관점에서 볼 때 이 둘은 사람으로 분류된 어휘 영역 한 곳에 속하게 된다. 그러나, 문맥의 관점에서 볼 때, 전자는 전쟁과 같은 문맥 영역에 속해야 하고, 후자는 기능과 같은 문맥 영역에 속해야 한다.

칼이나 끌(chisel)도 비슷한 방식으로 다루어질 수 있다. 어휘적으로 볼 때에 둘은 모두 대상(*Objects*, 로와 나이다의 분류에 따르면, 인공물)이다. 그러나 문맥을 놓고 볼 때 두 단어는 위 문단에서 논의된 두

단어와 각각 같은 영역으로 분류된다.

이 점을 보다 잘 살피기 위해서, קָבַל “줄”을 살펴보자. 이 단어는 어휘적으로, 그리고 LN 의미 영역에 따르면, 인공물로 분류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단어는, 아래 예가 보여 주는 바대로, 다양한 문맥에서 사용된다.

(a) 측량 도구로서:

REF 삼하 8:2

BHS וְיָאֵת-מֵאֹב וְיִמְדוּם בְּקָבַל וְ

RSV 그가 모압을 쳐서 저희를 줄로 재어. . . .

(b) 사냥 도구로서:

REF 욥 18:10

BHS טְבוּן בְּאַרְיָן חָבְלוּ וּמִלְכָּוֹת עָלָי נִחַיב:

RSV 그를 동일 줄이 땅에 숨겼고 그를 빠뜨릴 함정이 길에 베풀렸으며

(c) 장막을 한 자리에 지지하도록 돕는 물건으로서:

REF 사 33:20

BHS אֱהָל בַּל-יֵצֵעַן בַּל-יִסַּע וְתוֹמְיוֹ לִנְצַח וְכַל-חֲבָלָיו בַּל-יִחַקְּפוּ:

RSV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그 말뚝이 영영히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그 줄이 하나도 끊치지 아니할 것이다.

(d) 배의 장비 중 일부로서:

REF 사 33:23

BHS נוֹשֵׂט חֲבָלָיו בַּל-יִחַקְּפוּ כֵן-תִּרְנָם בַּל-פְּרוּשׁ יִס:

RSV 너의 돛대 줄이 풀렸었고 돛대 밑을 튼튼히 하지 못하였었고 돛을 달지 못하였었느니라.

(e) 항복의 표시로서:

REF 왕상 20:31

BHS וְשִׁמָּה נָא שָׂקִים בְּמַתְנֵינוּ וְחֲבָלִים בְּרֵאשֵׁנוּ

RSV 우리가 굽은 베로 허리를 묶고 테두리를 머리에 이고

어떤 문맥에서건, קָבַל은 항상 인공물이다. 어휘적으로는,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문맥과 관련해서는 많은 변화가 일어난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한 표제어에 어휘 의미가 하나 이상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동사 **אָנַח**에는 어휘 의미가 6 가지가 있다. 아래에서 그것들을 **정의**해 보도록 하겠다.

- (a) 타인의 눈에 쉽게 띄지 **않고/않거나**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장소로 가다
- (b) 위협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 장소
- (c) [a]의 사역 동사. 즉, 어떤 이로 하여금 타인의 눈에 띄지 **않고/않거나**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장소로 가게 하다
- (d) 다른 이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사라지다
- (e) [c]와 비슷함. 그러나, 특정한 장소를 지시하지 **않음**. 즉, 어떤 이를 (물리적인/비물리적인) 해로부터 지키다
- (f) [a]와 비슷함. 그러나, 사건에 적용됨. 즉, **그치다**

그런데, 이 여섯 가지 어휘 의미 각각에, 몇몇 서로 다른 문맥이 적용될 수 있다. 각 문맥은 본문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데, 이는 하나 혹은 그 이상의 문맥 영역에서 조사되어야 한다. 만약 이 문맥적 정보를 위 정의에 **대응어휘**의 형태로 통합한다면, 아래와 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이다.

- (a) 타인의 눈에 쉽게 띄지 **않고/않거나**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장소로 가다
 - 자신을 숨기다(초자연적 존재로부터)
 - 자신을 숨기다(침략자로부터)
 - 자신을 숨기다(대중으로부터 수치나 부끄러움을 피하여)
 - 피하다, 옆으로 비키다(대중 속에서 유력한 인물을 존경하는 마음에서)
 - 자신을 숨기다, 매복하다(다른 이를 공격하기 위하여)
- (b) 위협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 장소
 - 피난처(침략자로부터의)
 - 피난처(바람으로부터의)
- (c) [a]의 사역 동사. 즉, 어떤 이로 하여금 타인의 눈에 띄지 **않고/않거나**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장소로 가게 하다
 - 감금하다, 숨기다(감옥에)
 - 다른 이를 숨기다(그 사람을 해로부터 지키기 위하여)

- (d) 다른 이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사라지다
 - 몰래 사라지다
- (e) [c]와 비슷함. 그러나, 특정한 장소를 지시하지 않음. 즉, 어떤 이를 (물리적인/비물리적인) 해로부터 지키다
 - 다른 이를 숨기다 > 다른 이를 보호하다(하나님에 의해, 중상으로부터)
 - 다른 이를 숨기다 > 다른 이를 보호하다(하나님에 의해, 그의 손의 그늘 안으로)
- (f) [a]와 비슷함. 그러나, 사건에 적용됨. 즉, 그치다
 - (자신의 음성을) 숨기다 > 조용히 하다, 말하기를 그치다(대중 앞에서)

더 많은 예가 8장 견본 사전에 나와 있다.

5.2. 사전의 구성

우리는 이미 로와 나이다 사전의 구성에 몇 가지 문제가 있다는 점을 보았다. 표제어가 알파벳순으로 정렬되어 있지 않고, 의미 영역에 따라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의미 영역에서 몇 가지를 걸치는 표제어의 공유된 의미 요소를 보기가 힘들게 된다. 이것은 성서 히브리어나 신약성서 그리스어에 공히 해당되는 문제이다. 그 외에도, 이와 같은 구성은 단어가 비유적으로 사용되는 양식을 알기 힘들게 한다.

또 다른 문제는 우리가 분류를 할 때에 서로 다른 두 층의 분류를 한다는 점이다. 즉, 어휘 기준에 따르는 분류와 문맥 기준에 따르는 분류이다. 이 점 때문에 로와 나이다의 사전 구성을 모방하는 일이 힘들게 된다. 우리가 그들의 구성을 따르려면 양자택일을 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즉, 사전을 구성할 때 어휘 영역에 따라서 할 것인가, 문맥 영역에 따라서 할 것인가?

또한, 시대가 변하고 있다. 최근, 정보 기술이 놀랄 만한 속도로 발전하는 상황에서 인쇄된 사전의 효용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미 많은 학자들이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성서 본문을 보고, 강력한 검색을 하며, 마우스 한 번의 클릭으로 본문에 관한 문법적, 사전적, 혹은 그와 관련된 정보를 얻는다. 이와 같은 도구들의 도움으로 이제는 방대한 색인을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이 표제어, 저

표제어를 자신이 의도하던 것이라는 보장도 없이 헤매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전술한 주장들 때문에, 보다 전통적인 방식으로 회귀하여 사전을 구성할 때 표제어를 알파벳순으로 하는 것이 나을 듯하다. 인쇄된 사전을 선호하는 이들에게는 색인이 두 가지(어휘 영역 색인과 문맥 영역 색인)가 제공되어 같은 의미 영역에 속하는 모든 표제어들을 찾고 비교하도록 해 줄 것이다. 그러나,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이들은 특정한 어휘 영역이나 문맥 영역(혹은 두 영역 모두)에 속하는 모든(하위) 표제어들을 훨씬 더 쉽게 (그리고 빠르게) 찾을 수 있을 것이다.

6. 어휘 의미 영역

필자의 논문에서는 성서 히브리어에 적합한 어휘 의미 영역을 규정하기 위해서 전체 의미 범주를 상세하게 다루는 데에 수 장이 할애되었다. 그 전체 연구를 몇 마디 말로 요약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그 연구 결과의 개요만을 보여주려 한다.

6.1. 대상

의미 범주 대상과 관련하여, 다음 8 가지 어휘 의미 영역이 제시되었다.

- (a) 동물: 모든 살아있는 동물, 인간은 제외
- (b) 신: 모든 초자연적 존재
- (c) 부분: 홀로 존재할 수 없는 모든 대상. 다른 대상을 구성해 주는 부분. 따라서 대개 연합된 구조물의 일부로 나타나며, 소유 대명사를 필요로 함
- (d) 사람: 모든 인간 존재
- (e) 식물: 모든 초목과 나무
- (f) 생산물: 모든 무생물인 대상. 대개 크기가 작고, 사람, 신, 동물, 식물이 만들어냄
- (g) 배경: 모든 무생물인 대상. 대개 움직이지 못하고 구약성서의 사건이 일어나는 무대의 일부. 식물은 제외
- (h) 물질: 모든 무생물인 대상. 대개 셀 수는 없으나 측량될 수는 있

으며, 다른 대상의 재료가 됨

6.2. 사건

사건 의미 범주에는 다음 네 어휘 의미 영역이 있다.

- (a) 묘사: 대상의 특질을 묘사하는 모든 사건
- (b) 위치: 대상과 그 대상이 위치한 환경의 관계를 묘사하는 모든 사건
- (c) 관계: 대상이 다른 대상에 부착되어 있는 관계를 묘사하는 모든 사건
- (d) 지각: 대상과 생명체의 정신과의 관계를 묘사하는 모든 사건

이 네 영역 각각²⁾에 대하여 다음의 추상화 수준 세 가지를 구분해야 한다.

- A. 대상이 주 논항이 되어 일어나는 사건. 기본적, 구체적 의미를 사용될 때
- B. 대상이 주 논항이 되어 일어나는 사건. 보다 추상적 의미로 사용될 때
- C. 다른 사건이 주 논항이 되어 일어나는 사건

위 세 가지 하위 범주가, 이번에는 파생화 수준으로 세분된다.

- (1) 상태/과정: 사건의 가장 단순한 형태. 주 논항(상태의 주체, *Statant*) 이 사건을 지배하지 않는 경우.
- (2) 행위: 상태/과정에서 파생된 것. 주 논항이 행위자(*agent*)의 의미 기능을 하고 사건 지배하는 경우
- (3) 사역: 행위에 제 3의 논항(원인자, *causer*)이 더해져서 파생된 것. 이 때 원인자는 행위자로부터 사건의 지배권을 취하여 결과적으로 그 행위자가 위에서 기술된 행위를 수행하게 함
위에 제시된 계층 구조가 비교적 복잡하기 때문에, 각 어휘 의미 영

2) 지각의 어휘 영역에는, 대상을 주 논항으로 지닌 사건과 사건을 주 논항으로 지닌 사건 사이의 구별이 없다.

역을 보다 간략하게 표현할 필요성이 생긴다. 아래에 (비교적) 간단한 꼬리표로 된 예가 있다.

- 묘사, 대상, 상태/과정(a, A, 1)
- 위치, 사건, 행위(b, C, 2)
- 관계, 대상, 추상적, 사역(c, B, 3) 등.

6.3. 속성

성서 히브리어에서는 사건과 속성을 구별할 충분한 근거가 없다. 여기서는 속성도 사건으로 다루어질 것이다. 더 자세한 논의를 위해서는 필자의 논문을 참조하라.

6.4. 관계사

성서 히브리어에는 관계사의 유형이 세 가지가 있는 듯하다.

- (i) 관계 관계사: 대상과/이나 사건을 **연결**하는 관계사
- (ii) 지시사: 대상이나 사건을 **대체**하는 관계사
- (iii) 표시사: 대상이나 사건을 **지시**하는 관계사

위 세 범주 각각은 그들이 연결/대체/지시하는 바(대상, 사건)에 따라 다시 둘로 나뉜다.

첫 번째 형태의 관계사(즉, 관계 관계사)는 상태/과정과 관계된다. 그래서 사건 범주가 세분되는 방식으로 다시 나뉠 수 있다.

- 묘사, 대상
- 묘사, 대상, 추상적
- 묘사, 사건

- 위치, 대상
- 위치, 대상, 추상적
- 위치, 사건

- 관계, 대상

관계, 대상, 추상적
관계, 사건

지각, 대상/사건
지각, 대상/사건, 추상적

7. 문맥 의미 영역

문맥 의미 영역의 목록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8장에 있는 견본 사전에 몇 가지 예가 제시되어 있다.

8. 견본 사전

כח 명사, 남성 **כחכח**

(a) 대상: 부분

옷감 일부를 접어서 만든 작은 주머니; 의복의 일부; 작은 물건을 보이지 않게 옮길 때 사용함

기능; 의류; **찾다** > **주지(周知)**; **과실**: **כח כח** “(어떤 이의 부정을) 자기 의복 주머니 속에 감추다” > (어떤 이의 부정을) 다른 사람에게서 감추다(욥 31:33)

אכח

(1) 동사

사건: 묘사, 대상, 상태/과정

히트. 단단하게 되다; 액체에 관련; 추운 날씨 중 온도의 강화로 인하여 발생

액체; **온도**; **날씨** - 얼다(욥 38:30)

(2) 동사 **אכחא** 명사, 남성. **אכחא** 명사, 남성. **כחכח**

(a) **사건**: 위치, 대상, 행위

니.; 푸.; 히트. 다른 사람이 잘 볼 수 없고/없거나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장소로 가다

찾다; **두려워하다**; **환영** - 자신을 숨기다(초자연적 존재로부터) (창 3:8, 10; 대상 21:20; 단 10:7)

찾다; 두려워하다; 고난 - 자신을 숨기다(침략자로부터) (수 2:16; 10:16, 17, 27; 삿 9:5; 삼상 13:6; 14:11, 22; 19:2; 23:23; 왕하 11:3; 대하 18:24; 22:9, 12; 욥 24:4; 암 9:3)

찾다; 상태; 집단 - 자신을 숨기다(대중으로부터 수치나 부끄러움을 피하여) (삼상 10:22)

찾다; 상태; 집단 - 피하다, 옆으로 비키다(대중 속에서 유력한 인물을 존경하는 마음에서) (욥 29:8)

찾다; 폭력 - 자신을 숨기다, 매복하다(다른 이를 공격하기 위하여) (삼하 17:9)

(b) **사건 > 대상:** 위치, 대상, 행위

명사 위협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 장소

찾다; 고난 - 피난처(침략자로부터의) (삼상 23:23)

찾다; 날씨 - 피난처(바람으로부터의) (삼상 32:2)

(c) **사건:** 위치, 대상, 사역

히.; 호.(수동태) [a]의 사역 동사. 즉, 어떤 이로 하여금 타인의 눈에 띄지 않고/않거나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장소로 가게 하다

제한 - 감금하다, 숨기다(감옥에) (삼상 42:22)

찾다; 돌보다; 고난 - 다른 이를 숨기다(그 사람을 해로부터 지키기 위하여) (수 6:17, 25; 왕상 18:4, 13; 왕하 6:29)

(d) **사건:** 위치, 대상, 추상적, 행위

니. 다른 이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사라지다

여행하다; 주지 - 몰래 사라지다 (창 31:27)

(e) **사건:** 위치, 대상, 추상적, 사역

니.(수동태); 히. [c]와 비슷함. 그러나, 특정한 장소를 지시하지 않음. 즉, 어떤 이를 (물리적인/비물리적인) 해로부터 지키다

돌보다; 의사소통; 섭리 - 다른 이를 숨기다 > 다른 이를 보호하다(하나님에 의해, 중상으로부터) (욥 5:21)

돌보다; 고난; 섭리 - 다른 이를 숨기다 > 다른 이를 보호하다(하나님에 의해, 그의 손의 그늘 안으로) (사 49:2)

(f) **사건**: 위치, 사건, 행위

니. [a]와 비슷함. 그러나, 사건에 적용됨. 즉, 그치다
의사소통; 집단 - (자신의 음성을) 숨기다 > 조용히 하
다, 말하기를 그치다(대중 앞에서) (욥 29:10)

חבב 동사 **חב, חבב, חבב**

사건: 관계, 대상, 추상화, 상태/과정
칼 타인을 향한 깊은 애정을 경험하다
애정 - 사랑하다 (신 33:3)

חבב 명사, 이름 **חבב**

관계사: 대상 지시사
르우엘의 아들; 미디안 사람; 겐 족속의 조상
이름; 개인 - 호밥(민 10:29; 삿 4:11)

חבב 동사 **חבב: חבב, חבב, חבב**

사건: 위치, 대상, 행위
칼; 니. 다른 사람이 잘 볼 수 없고/없거나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장소로 가다
찾다; 두려워하다; 고난 - 자신을 숨기다(침략자로부터)
(왕상 22:25; 사 26:20; 렘 49:10)
찾다; 폭력 - 자신을 숨기다, 매복하다(다른 이를 공격
하기 위하여) (왕하 7:12)

חבב 명사, 이름 **חבב**

관계사: 대상 지시사
세멜의 아들; 아셀 족속
이름; 개인 - 흠바(Hubbah)(대상 7:34)

(a) 대상 7:34 - MT-Q NIV NJB NJV NRSV CEV; MT-K RSV
REB TEV **חבב**; “여흠바”

חבב 명사, 이름

관계사: 대상 지시사
강; 메소포타미아 소재; 유프라테스 강의 동쪽 지류

이름: 자연 - 하볼(왕하 17:6; 18:11; 대상 5:26)

מַגְרָה 명사, 여성 מַגְרָה(1)

사건: 묘사, 대상, 상태/과정

병이나 타인이 입힌 상처가 몸에 분명히 남아 신체가 손상된 상태

몸; 고난 - 타박상, 염증, 부상(창 4:23; 출 21:25; 시 38:6; 잠 20:30)

몸; 처벌, 보상 - 타박상, 염증, 부상(처벌로서 남에게 가한 것) (출 21:25)

몸; 의인화; 집단; 고난 - 타박상, 염증, 부상 > 비탄스러운 상태 (국가 전체의) (사 1:6)